

# 김영란법,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도, 농축수산물 5만원 미만 소포장 개발 지원·유통비용 절감 위한 시설 현대화 집중키로

전북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마케팅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격기준을 3·5·1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북은 연간 764~872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달 2일 농축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추진해 도내 농업생산액 감소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위기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농축수산물의 중량 조정 등을 통한 5만원 미만 소포장 개발을 위해 한우, 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용역(3억2,000만원)을 시행했다.

또한 수산물 규격 변경을 통한 소포장 상품 3종과 선물용 과일 포장단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미에 7만원 하던 황금박태를 7미에 49,000원으로 소규모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신고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신고가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김준서 전주공업고등학교(CNC선반부), 김소라 전주비전대학교(헤어디자이너 부분) 선수대표를 격려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킨데 이어 가지미(45,000원), 장대세트(45,000원)로 세분화한데 이어 사과 5kg을 4kg으로, 배 7.5kg~5kg, 사과·배 혼합(9과~7과), 인산 소포장 패키지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과 '원예농산물 상품화 시설 및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에 집중키로 했다.

향후 도는 5만원 미만의 소포장 개발 지원 사업비 6억2,000만원을 확보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 선제적 노력으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사업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아파트 복도·계단서도 담배 못핀다

###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시 금연구역 지정

앞으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도는 충분한 홍보와 제도기간을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알리는 한편 금연건강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뉴스

## 전북도 재정건전성 대체로 '양호'

### 채무액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북도 재정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라북도 재정공시(2015년 회계연도 재정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살이는 6조999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조792억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 3조687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조3336억원 등이다.

도의 재정을 총복과 강원 등 유사

지자체(9곳)와 비교했을 경우, 재정규모와 자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재정자립도 23.48%, 재정자주도는 37.87%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채무액은 평균보다 낮아 재정상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의 채무 총액은 7898억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 채무액(1조1665억원)보다 적다.

또 총 채무액 중 시군 융자금 3388억원을 제외하면 순 채무액은 4510억원이다.

/뉴스

## 지방세, 핀테크 활용 '모바일' 납부 가능

9월부터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을 온라인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

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차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할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6종이다.

행자부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의 납부 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후 행자부 지방세행정혁신은 "위택스에 모바일 앱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정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효과 '미비'

### 지원 대상 폭 좁아... 도내 총 1158명 지원받아... 조제분유는 2명 불과

정부가 시행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대응 및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사람은 도내에서는 총 1158명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의 부모

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저귀는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이 해당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5명, 군산 134명,

정읍 76명, 김제 71명, 남원 69명, 완주·고창 49명, 순창·무주 30명, 부안 25명, 임실 22명, 장수 2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 폭이 좁으면서 이 사업 혜택을 보는 도민은 극소수다.

실제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되면서, 현재까지 혜택을 본 사람은 겨우 2명(전주·익산)뿐이었다.

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A(27·여·전주)씨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조제분유 같은 경우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만 해당돼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될 것 같다"라며 "지원 폭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기 전부터 사업에 대해 많이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원 폭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더 많은 저소득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조정해달라고 유선상으로 건의한 상태이며, 도에서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회의 때 직접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